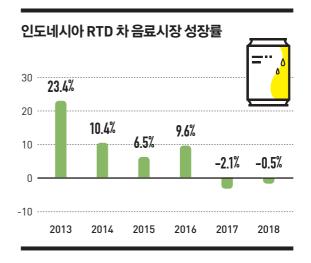
# RTD 차 음료시장의 변화

#### 자카르타지사



## 경기 불안정으로 차 시장 성장 내리막길

- 인도네시아 RTD\* 차 음료 점유율은 전체 음료의 약 5.7%로, 음료시장의 70%를 장악하고 있는 생수 다음으로 근 수치이며 유제품 3.1%, 주스 3.0%, 탄산음료 2.5% 및 기타음료(커피, 에너지드링크 등) 가 그 뒤를 잇고 있다.
- 인도네시아 음료협회(Indonesian Soft Drink Industry Association-ASRIM)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RTD 차음 료시장 규모는 약 34억 5천만 달러(약 3조 9천억 원)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3%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2017년에 경기 불안정의 여파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.
- 「유로모니터」는 2015년~2020년 사이 인도네시아 RTD 차 음료 성장률을 평균 12.5%로 예측하며 경제회복에 따라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경제 성장지수 에 따라 단기적으로 구매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커피



와 차를 즐겨 마시는 전통, 연평균 3백만 명의 인구증가, 경제성장, 중산층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는 마시기 편한 RTD 차 음료의 소비가 점차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된다.

#### 건강한 음료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요청

-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출시된 RTD 차 음료 제품은 1974 년에 Sinar Sosro가 생산한 Teh Botol Sosro이며, 기존 세대가 즐기던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그대로 재현해냄 으로써, 여러 소비층의 호응을 받으며 시장을 선점했다. 하지만 새로운 제품의 개발 없이 줄곧 한 가지 맛을 고수 한 결과 현재는 시장점유율 2위에 머무르고 있다.
- RTD 차 음료는 베이비부머(Baby Boomer) 세대가 좋아하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전통 차 맛과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달콤한 과일 맛 등을 추가한 제품으로 나뉘고 있으며, 세대교체에 따라 차 음료시장의 점유율도 뒤바뀌고 있다.
- 최근에는 볶은쌀 맛, 바닐라 판단잎 맛, 한약 맛, 리치 맛 등 이색원료를 함유한 각양각색의 차 음료제품도 출 시되고 있다.

## 건강중심의 한국형 차음료 개발 효율적

- 「AC Nielsen」 조사에 따르면 RTD 차 음료의 주 소비 층은 15~35세의 젊은 계층이다.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는 건강함과 제품의 가치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이 세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설탕함유량을 줄인 음료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으며 저렴한 이미지의 컵 스타일을 탈피하고 플라스틱 병으로 패키징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다.
-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총 91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보리차, 옥수수차 등 건강에 좋은 차 종류에 대해서도 인 지도가 높아지고 있다. 인도네시아 차 음료 시장 진출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 입맛에 맞춘 한국식 차 음 료 신제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.

순위	브랜드 (생산사)	2012년 → 2017년 시장점유율 변화	제품특성
1	<b>Teh Gelas</b> (Orang Tua Group)	24.4% → 40.5%	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단맛으로 씁쓸한 맛이 적으며 마시기 편한 컵 용기에 포장됨.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연령층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제품.
2	<b>Teh Botol Sosro</b> (Sinar Sosro)	45.5% → 17.6%	인도네시아 최초 RTD 차 음료제품으로, 차 고유의 쌉쌀한 맛을 재현하고 단맛을 강화한 차 음료. 독보적인 시장 1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으나 고유의 맛을 고수하며 시장선도에서 물러남.
3	<b>Teh Pucuk</b> (Mayora Group)	3.5% → 11.3%	출시 이후 Teh Sosro보다 많은 광고지금을 들여 홍보를 했으며, 설탕함유량이 적은 Less Sugar RTD 차 음료는 유사제품 중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(92.6%)를 자랑함. (2017년 기준)

출처: www.theedgemarkets.com en.wikipedia.org